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6. 24.(수) 11:00

우즈베키스탄과 공공행정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 총리·상원의장·디지털기술부장관 등 고위급 면담 실시
- 한-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협력포럼 및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이 6월 20일(토)부터 6월 23일(화)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해 양국 간 디지털 정부와 재난 안전 분야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윤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총리와 상원의장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개소했으며, 「한-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협력포럼」도 공동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정부, 공무원 역량 강화 등 우즈베키스탄 측의 협력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공공행정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 총리·상원의장 예방, 한-우즈베키스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먼저, 윤호중 장관은 압둘라 아리포프(Abdulla Aripov) 총리를 예방했다. 윤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20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양국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AI)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AI 민주정부’의 정책 경험을 우즈베키스탄과 적극 공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재난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AI를 활용한

재난 관리에 대해서도 양국간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국가기록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지난 2016년 체결한 기록 관리 분야 업무협약에 대해 디지털 AI 도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MOU 재체결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윤 장관은 탄질라 나르바예바(Tanzila Narbaeva) 상원의장을 예방하여 양국 간 공공행정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양국의 협력관계가 경제, 투자를 넘어 행정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디지털 정부와 AI 정부 전환에 대해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디지털정부 선도국가인 한국과의 협력은 우즈베키스탄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호혜적으로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기술부장관 면담, 양해각서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

윤 장관은 셰르조드 셰르마토프(Sherzod Shermatov) 디지털기술부 장관과 「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어진 셰르마토프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AI 정부24’, ‘AI 국민비서’, ‘AI 통합민원플랫폼’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AI 활용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센터는 2013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운영되는 것으로, 2028년까지 정책 자문, 전문 인력 양성 등 양국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공공행정협력포럼 개최, 공공분야 AI·재난관리·인사 혁신 경험 공유

한편, 협력단은 현지 시간 6월 22일(월)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와 「한-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분야 AI 도입과 활용, ▲데이터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실무자간 회의도 운영됐다.

>> 고려인, 교민 등 재외동포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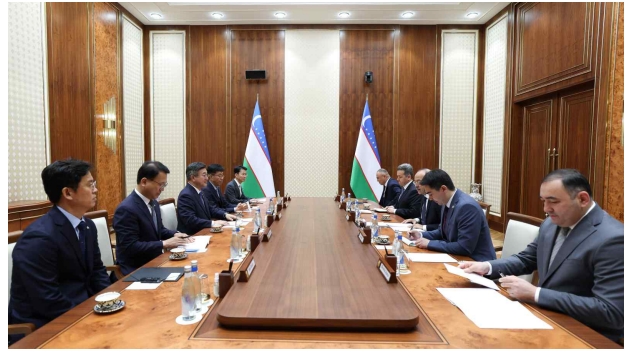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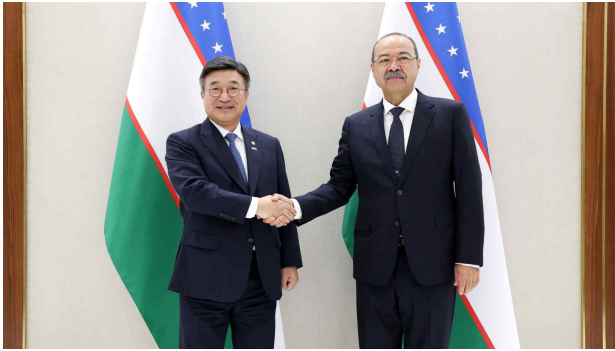
윤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교민·경제인 간담회와 고려인 동포 간담회도 각각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양국 우호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 온 재외 교민과 고려인 동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2,800명의 교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약 18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동서양을 잇던 실크로드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에 ‘AI 민주정부’와 ‘K-재난안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행정을 중앙아시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양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행정한류담당관	책임자	과장(직무대리) 이영조 (044-205-1827)
		담당자	사무관 최민영 (044-205-1832)



1. 압둘라 아리포프 우즈베키스탄 총리 예방



2.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 면담



3. 세르마트프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장관 면담



4. 한-우즈벡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5. 한-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 협력포럼 개최



6.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현장 방문



7. 고려인 간담회 / 우즈베키스탄 교민 간담회



8. 정책현장방문-황만금 박물관 방문

